

## 한용운의 시 번역 분석: 인지적 직시를 중심으로\* \*\*

한미애 · 조의연  
(동국대\_서울)

### 1. 서론

직시(deixis)는 ‘가리키기(pointing)’라는 의미로, 단어 선택과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에서 ‘나’, ‘지금’, ‘여기’가 직시어에 해당된다(Stockwell 2002: 41). 이 문장이 사용된 상황을 알아야 ‘나’가 누구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직시어의 의미를 알려면 직시어가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직시는 인지 맥락적 특성을 지니며 텍스트의 의미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일상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청자는 화자가 구성한 직시적 의미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나’는 화자(발신자)이고 ‘너’는 청자(수신자)인 일반적인 대화 상황과 달리,

문학 텍스트에서 ‘나’와 ‘너’는 다층적인 의미를 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나 소설에서 ‘나’는 실제 저자일 수도 있지만 내포 저자이거나 시적 화자/서술자 또는 등장인물일 수도 있다. ‘너/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너/여러분’은 텍스트 안의 특정 인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독자 등을 가리킬 수도 있다. 직시는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직시가 사용된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렇듯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직시는 번역할 때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 수 있다. 저자와 목표독자의 맥락과 인지환경이 다르며, 직시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과 「나룻배와 행인」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독자가 어떤 맥락을 염두에 두고 시를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불교라는 종교적 맥락에서 읽는다면 ‘나’는 중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읽는다면 ‘나’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읽는다면 ‘나’는 식민지민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의 해석에 따라 ‘나’의 상대자인 ‘님’이나 ‘당신’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님’이나 ‘당신’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자의 주관적인 수용태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존재인 것이다”(양병호 1989: 217). 이런 인지 맥락적 특성을 지닌 직시의 번역 양상에 따라 시 텍스트의 해석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시의 번역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용운의 대표적인 시 「님의 침묵」과 「나룻배와 행인」에 나타난 직시적 표현의 번역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직시어 번역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스톡웰(Stockwell 2002)이 제시한 인지적 직시의 여섯 가지 범주를 요약 정리한다. 3장에서는 인지적 직시를 분석틀로 삼아 「님의 침묵」과 「나룻배와 행인」을 영역본 여섯 종류와 대조 분석한다. ‘나’, ‘님’, ‘당신’ 등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직시어 등의 번역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요약, 재기술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5612).

\*\* 본 연구는 한국번역학회 2019년 가을 학술제 발표를 발전시킨 것임.

## 2. 이론적 배경

### 2.1 직시어와 번역

직시어 ‘나’의 경우, 화자는 일상 대화에서 직시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이야기하지만,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직시 중심을 텍스트 안에 있는 ‘나’에 둔다. 독자는 문학작품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인지적으로 구성하여 문학작품 세계 안의 ‘나’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등장인물이나 서술자 또는 시적 화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그 관점으로 직시적 표현을 이해함으로써 풍부한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직시어는 그 자체가 정신적 구성물”(Richardson 1998: 138)이며, “주관적이고 주의를 끌고 의도적”(Levinson 2006: 98)으로 사용된다. 서술자나 화자는 직시어를 상황과 관련시켜 사용하여 자신의 인식이나 관점을 표현하고, 독자는 인지적 구성을 통하여 직시어를 해석하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문학 텍스트에 직시어가 많을수록 독자와 유대관계가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독자를 청자로 여기기 때문이다”(Furrow 1988: 375). 즉 서술자나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사건을 독자도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와의 유대감은 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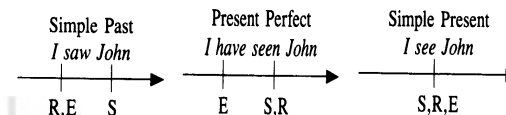
직시 현상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지만 직시어의 의미는 맥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번역 상황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원천 문화의 맥락에서 사용된 직시어는 목표 문화의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차드슨(Richardson 1998: 125-126)에 따르면, 목표 텍스트의 직시적 관점은 목표독자에게 일관성 있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I, now, here’는 번역 과정에서 목표독자의 상황이나 맥락에 맞추어 변형된다.

직시적 관점이 바뀌는 현상은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조의연(2009)은 *The Catcher in the Rye*의 번역본에서 ‘this’는 ‘이’ 대신 ‘그’로 번역되었고, 『모순』의 영역본에서 ‘이’는 ‘this’ 대신 ‘that’으로 변환되어 화자의 관점이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즉 화자와 청자 간의 공간적, 심리적 근접성이 상실된 것이다. 한미애(2013)는 『눈길』의 영역본에서 어머니를 지칭하는 ‘노인’과 서술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직시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인’을 ‘the old

woman’ 대신 ‘my mother’로 번역할 경우, 심리적인 거리감이 멀어지는 대신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장인물의 인식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현재시제나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를 살려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수연(2014)은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old man’이라는 호격을 번역할 때 보존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아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나 등장인물 간의 유대관계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세 연구에서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this’와 ‘that’ (지각적 직시), 시제(시간적 직시), 등장인물 간의 관계(관계적 직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시의 범주를 확대하여 시에 나타나는 ‘나’, ‘당신’, ‘남’(지각적 직시), 시제와 상(시간적 직시), ‘나’와 ‘남’(관계적 직시)뿐만 아니라 시의 특성(텍스트적 직시), 행과 관련된 관습(구성적 직시)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직시어를 번역할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관사와 상(aspect)처럼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 체계가 다른 경우이다. 하티姆과 메이슨(Hatim and Mason)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언어는 문화 공동체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바를 표현할 수 있지만 문법적 어휘적 구조나 범주로 인해 번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응어가 없는 표현이 직시 범주에서 발견된다(1990: 27).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의 문맥에 따라 번역가가 관계되는 지시어를 결정해야 한다. 시제와 상을 예를 들면, 한국어의 단순 과거 형식의 발화 ‘나는 존을 보았다.’는 문맥에 따라 ‘I saw John’, ‘I have seen John’으로 번역되어 한국어와 달리 영어의 내포된 의미는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를 라이헨바흐(Reichenbach 1966: 290)는 <표 1>처럼 제시한다. 화살표는 시간 흐름의 방향이다. S는 말하는 지점(point of speech), E는 사건이 일어난 지점(point of event), R은 참조 지점(point of reference)이다.

<표 1> 시제의 차이 (Reichenbach 1966: 290)



‘I saw John’은 사건이 일어난 지점(E)과 참조 지점(R)은 같고, 말하는 지점(S)은 다르다.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현재라면, 존을 본 사건과 나타내고 싶은 지점은 과거이다. 즉 표현하고 싶은 것은 존을 본 사건이다. ‘I have seen John’은 말하는 지점(S)과 참조 지점(R)은 같고 사건이 일어난 지점(E)은 다르다.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현재라면, 존을 본 사건은 과거이고, 화자가 나타내고 싶은 지점은 현재이다. 즉 표현하고 싶은 것은 존을 만나고 난 후의 현재 상태라 볼 수 있다. ‘I see John’은 말하는 지점(S), 참조 지점(R), 사건이 일어난 지점(E)이 모두 같다. 존을 보는 행위와 동시에 말을 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직시 체계가 대응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번역가가 선택하는 목표 텍스트의 직시 표현의 기능은 원천 텍스트의 직시 표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2.2 인지적 직시

인지적 직시는 인지시학의 한 분야이며, 인지시학은 “인지적 사고방식과 개념을 적용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정화, 서소아 2009: 7). “인지시학에서 연구하는 문학성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개념이다. 어느 특정 언어나 문화권에 속하는 문학의 개념이 아니라 문학작품이 가지는 보편적인 개념이다”(한미애 2011: 206). 따라서 인지적 직시도 보편적인 문학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문학 맥락에서 직시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며 스톡웰(Stockwell 2002: 45-55)은 직시의 범주를 여섯 가지로 확대한다. 스톡웰이 분류한 직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지각적(perceptual) 직시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지각적 참여자(perceptive participants)와 관련된 표현이다. 인칭대명사(나/너/그들), 지시대명사, 정관사, 한정지시(그 사람, 고유명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② 공간적(spatial) 직시는 장소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여기, 저기), 이동동사(오다가다, 가져오다/가져가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③ 시간적(temporal) 직시는 시간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시간부사(오늘, 어

제, 내일), 시제와 상(aspect)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④ 관계적(relational) 직시는 저자, 서술자, 등장인물, 독자 간의 관계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서법성, 시점과 초점화, 이름 짓기 및 호칭 관습이 이에 해당된다.
- ⑤ 텍스트적(textual) 직시는 텍스트성을 전경화하는 표현이다. 소제목, 문단 나누기, 관심을 끄는 시적인 특성, 그럴듯함이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⑥ 구성적(compositional) 직시는 문학적 관습을 명시화하는 텍스트의 측면이다. 14행시(sonnet), 희곡 서문의 배역 목록, 소설의 헌정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섯 가지 범주 중 분석 텍스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직시 현상이나 번역본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직시 현상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할 것이다. 상당 부분 중복되는 시간적, 관계적, 텍스트적 직시는 각각의 텍스트에 한 번만 적용하였다. 「님의 침묵」에서는 지각적, 시간적, 관계적 직시를 중심으로, 「나룻배와 행인」에서는 지각적, 텍스트적, 구성적 직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텍스트에 나타난 인지적 직시 현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므로 텍스트 외적인 요소는 분석에서 제외할 것이다.

## 3. 시 번역 분석

원천 텍스트(ST)는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과 「나룻배와 행인」이다. 이 두 시는 한용운의 대표적인 작품일 뿐 아니라 번역 양상도 다양하여 원천 텍스트로 삼았다. 목표 텍스트(TT) 여섯 종류를 시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TT1은 소설가 강용훈(Kang Younghill)과 킬리(Frances Keely)가 공동으로 번역한 텍스트이고, *Meditations of the Lover*(1970)에 실려 있다. TT2는 김재현(Kim Jaihiun)이 번역하였고, *Modern Korean Poetry*(1994)에 실려 있다. TT3은 오록(Kevin O'Rourke)이 번역하였고 *Looking for the Cow*(1999)에 실려 있다. TT4는 솔버그(Sammy Solberg)가 번역하였고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2004)에 실려 있다. TT5는 장경렬(Jang Gyung-ryul)이 번역하였고 *Selected Poems from the Silence of My Love*(2005)에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TT6는 맥칸(David McCann)이 번역하였고 *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2017)에 실려 있다.<sup>1)</sup>

### 3.1 「님의 침묵」의 직시 번역

직시적 현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1연 10행으로 구성된 「님의 침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컷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  
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  
을 깨치는 일인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위의 시에 ‘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임’의 고어체이다. 한용운은

1) 이외에도 노저용(Noh Jeo-yong)이 번역한 텍스트가 *Korean Buddhist Poems*(2005)에 실려 있다. 다른 TT와 번역 전략이 유사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님의 침묵」이 실려 있는 『님의 침묵』서문 ‘군말’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론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라고 님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만해의 [님]은 남자의 님인 여자, 여자의 님인 남자 하는 [애인]의 개념 폭을 상당히 넓혀 놓고 있다”(김광길 1990: 29). 이렇듯 ‘님’의 의미의 비결정성으로 인하여 맥락에 따라 다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맥락의존적인 직시적 표현들이 어떻게 번역에서 드러나는지 지각적 직시, 시간적 직시, 관계적 직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3.1.1 지각적 직시

지각적 직시는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 등의 지각적 참여자와 관련되어 있다. 「님의 침묵」에서 지각적 참여자는 ‘나’와 ‘님’이다. 지각적 직시인 일인칭대명사 ‘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나’가 호칭하는 ‘님’의 직시적 의미도 나타난다. ‘나’를 지각적 직시로서 사랑의 참여자로 본다면 ‘님’은 연인이 되고, 다른 맥락에서 ‘나’를 해석하면 ‘님’의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윤석성(2014: 54)에 따르면, 내가 수행자일 때 님은 무명중생이고, 내가 중생일 때 님은 보살이나 부처이며, 내가 확고한 역사의식을 지녔을 때 님은 빼앗긴 민족이나 국가가 되고, 내가 식민지화 된 조국의 영토에서 실의와 좌절에 빠진 지식인이 되었을 때 님은 조국이나 민족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김재홍(1998: 225)에 따르면, ‘님’은 생명이나 양심, 정의 등을 포괄 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지각적 직시 ‘나’는 맥락적으로 의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TT에서 모두 I로 번역되어있다. 반면 ‘나’와 상관관계에 있는 ‘님’의 번역 양상은 다르다. 우선 시의 제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예 1)  
(ST) 님의 침묵  
(TT1) Meditations of the Lover  
(TT2) The Silence of Love  
(TT3) The Silence of My Love  
(TT4) Your Silence  
(TT5) The Silence of My Love  
(TT6) The Silence of the Beloved

우선 TT1의 ‘lover’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어휘이기는 하지만 침묵이 ‘meditations’로 번역되어 ‘lover’의 해석이 종교적 개념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제목 번역과 관련하여 김옥동(2010: 37)도 ‘침묵’을 ‘명상’으로 옮긴 것은 지나친 의역이라고 설명하였다. TT2의 ‘love’는 관사가 없으므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일컬으려면 TT3과 TT5처럼 ‘my love’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TT2는 본문에서 ‘님’을 ‘his’나 ‘him’으로 번역하여 ‘님’이 남성임을 내포하고 있다. TT4는 ‘님’을 재해석하여 ‘your’로 번역하였다. 시적 화자가 ‘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 셈이다. “시에서 어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언어적 거리가 결정”(하길중 2007: 247-248)되는데, “언어적 거리란 실제상의 거리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있는 심리적 거리이다.”(232) 인지공간에서 3인칭으로서의 ‘님’은 2인칭 ‘당신’보다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대상이며 객체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님’을 ‘you’로 번역하는 것은 ‘님’의 의미를 한정시켜 적합해보이지 않는다. 윤호병(2003: 8)도 ‘you’나 ‘love’로 번역하는 것은 ‘님’의 다의적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beloved’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을 가리키며 ‘님’처럼 고어체이다. 따라서 ‘님’처럼 다택락적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번역은 ‘my love’와 ‘the beloved’로 볼 수 있다.

제목에 사용된 ‘님’은 본문에서도 여러 번 사용된다. 제목 번역에서는 (예 1)의 TT4만 ‘님’을 ‘you’로 번역하였지만 (예 2)에서는 TT4뿐 아니라 TT1과 TT5에서도 ‘you’로 번역하였다.

(예 2)

(ST)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TT1) A lover is gone

O my lover gone away

as you loved me so I loved you!

(TT2) Love is gone, Gone is my love.

(TT3) My love left, ah ah, my loving love left.

(TT4) You have gone. Ah, you have gone.

(TT5) My love is gone. Ah, my love, you are gone now.

(TT6) The beloved has gone. A-ah, the beloved, the one I love has gone.

(예 2)의 TT1, TT4, TT5처럼 ‘님’을 ‘you’로 번역하는 경우, 시적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게 될 뿐 아니라 (예 3)의 ‘we’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한 ‘you’가 있을 경우 ‘we’의 의미는 특정한 ‘you’가 포함된 특정한 ‘we’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표현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의 집의 위치를 알려줄 때, ‘우리 집은 여기에서 가깝다’에서 ‘우리’는 청자가 배제된(exclusive) ‘we’이다. 하지만 (예 3)의 ‘우리’는 특정인이 아니라 청자가 포함된 보편적 인물이다.

(예 3)

ST: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TT1: If meet we must under

the threat of parting

we swear our vows in

thrust to meet again.

O my lover gone away

I do not say good bye!

TT2: As we dread parting when we meet, so,

we promise to meet again when we part

Though my love is gone, I am not parted from love;

TT3: And just as we worry about leaving when we meet,

so also when we leave,

we believe we will meet again.

Ah, ah, my love left, but I did not send my love away.

TT4: Just as we fear parting when we meet, we believe we will meet again when we part.

Ah, even though you are gone I have never said goodbye.

TT5: Just as we fear parting when we meet, we believe we will meet again when we part.

Ah, my lover, your are gone, but I did not let you go.

TT6: I believe we shall meet again after parting just as we worry a meeting that we shall part.

Ah, the beloved has gone away but it was not I that sent the beloved away.

(예 3)은 8행-9행에 해당된다. 시적 화자는 1행에서 6행에 걸쳐 ‘님’이 떠난 슬픔을 노래하고, 7행에서는 슬픔 속에서도 만남에 대한 희망을 시사한다. 8행에서는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라는 보편적 인물을 지칭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언표하고 있는 것이다”(고형진 1996: 82). “만남은 이별의 시작이요, 이별은 만남의 단서라는 우리에게 아주 낮은 불교의 교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매우 평범한 듯한 제8행의 표현은 이 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김룡태 1988: 95)을 한다. 9행에서는 ‘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님’은 떠난 대상이며 침묵 속에서만 존재하므로 8행의 ‘우리’는 특정인이 아니라 보편적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정사실화된 믿음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3)에서 ‘우리’를 모두 ‘we’로 번역하였지만 문맥에서 ‘we’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 2)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TT1과 TT5에서는 ‘님’을 일부 ‘you’로 번역하였고 TT4는 모두 ‘you’로 번역하였다. 이럴 경우 독자를 배제한 화·청자의 특정한 ‘we’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TT2, TT3, TT6에서 텍스트에서 ‘님’은 2인칭 대명사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we’는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슬픔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자 보편화된 ‘우리/we’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님’을 ‘you’로 번역하는 경우, ‘we’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님’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은 시적 화자 ‘나’가 지각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맥락 의존적 직시현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3.1.2 시간적 직시

「님의 침묵」에서 시간적 직시는 동사 시제와 관련되어 있다. ‘님’과 관련된 사건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등은 과거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나’의 현재의 마음상태 ‘슬픔에 터잡니다’ 등은 현재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갔습니다는 단순한 의미의 과거는 아니다. 과거의 (가 버린) 님과 관련된 현재

의 의식, 즉 추억의 다름 아니다”(김룡태 1988: 11). “떠난 님에 대한 ‘나’의 내면심정과 정황이 하나의 과거사실로서 객관적 상황으로 현현되고 있다. 즉 ‘님’은 이미 떠나가고 없으며, ‘나’ 역시 그같은 객관적 사실 안에 묶여 있는 것이다”(고형진 1996: 83). 다시 말해 ‘님’이 떠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시적 화자의 슬픔은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님’과 관련된 과거시제는 현재완료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예 2)에서 본 것처럼, 시의 첫 행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의 시제 번역 양상은 다르다. TT1, TT2, TT5에서는 ‘갔습니다’를 현재시제 ‘is gone/ are gone’으로 번역하였다. 현재시제는 <표 1>에서 보았듯이, 말하는 지점, 사건 지점, 참조 지점이 같다. 즉 시적 화자가 말하는 지점은 현재이고, 님이 가버린 사건도 현재에 일어났으며,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지점도 현재이다. 다시 말해 현재에 ‘님’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TT1은 ‘as you loved me so I loved you’를 설명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상대를 현재에 사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TT5는 직시어 ‘now’를 추가하여 현재의 상태 ‘are gone’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TT3은 과거시제 ‘left’를 사용함으로써 님이 떠났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시적 화자의 현재 마음 상태는 알 수 없다. 한편 TT4는 ‘have gone’, TT6은 ‘has gone’으로 번역함으로써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마음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즉 ‘님’이 과거에 떠나 현재 여기에 없으므로 ‘나’의 현재의 마음 상태가 절망적이고 슬프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갔습니다’는 시의 문맥상 현재완료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 4)에서는 시적 화자의 현재의 슬픈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 4)

ST: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잡니다

TT1: meeting parting

wondering heartbreak sudden  
as without shadow of warning  
a lover is gone!

TT2: The separation came so suddenly

it broke my heart with renewed sorrow.

TT3: But parting came

so abruptly,

my heart went into shock; it burst in new grief.

TT4: parting comes upon us unawares and the startled heart bursts with a fresh sorrow.

TT5: But parting comes upon us unawares and my startled heart breaks with renewed sorrow.

TT6: parting comes without expectation and plunges the astonished heart into renewed sorrow.

(예 4)의 TT2와 TT3은 ‘터집니다’를 과거시제 ‘broke’, ‘burst’로 각각 번역하였다. 과거시제로 번역할 경우, 시적 화자의 슬픔은 과거에만 존재하게 되므로 슬픔이 현재에도 남아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TT1은 시제를 직접적 명시하지 않고 명사 ‘heartbreak’로 번역하였지만 문맥상 시제가 현재(is)인 것으로 보아 현재의 슬픔임을 알 수 있다. TT4는 ‘bursts’, TT5는 ‘breaks’, TT6은 ‘plunges’로 번역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이 현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현재의 마음상태는 현재시제로 번역해야 한다.

### 3.1.3 관계적 직시

「님의 침묵」에서 관계적 직시는 시적 화자인 ‘나’가 ‘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시적 화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일컫는지에 따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암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님의 침묵」에서 ‘나’와 ‘님’의 관계는 중요하다. “‘님’ 자체만으로써는 완전한 존재를 이루지 못한다. 그 ‘님’은 ‘내’가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는 ‘님’이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이다”(윤재근 1983: 351). ‘나’와 ‘님’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상호의존적”(양병호 1989: 217)이다. 특히 시적 화자는 조국을 잃은 사람이나 사랑을 잃은 사람 등 다의적 맥락을 갖고 있다.

(예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적 화자는 상대방을 ‘나의 님’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나의’라는 말을 사용하여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보다 애정 어린 관계로 표현하였다. 또한 당신이라는 말 대신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근함보다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님’은 연인뿐

아니라 부처, 조국, 민족 등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TT1은 ‘my lover’, TT2, TT3, TT5는 ‘my love’로 번역하여 화자인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보다 애정을 지닌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TT6은 ‘the one I love’로 번역하여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설명적으로 표현했다. TT4는 ‘you’로 번역하였는데, ‘you’는 격식 없는 친근한 사이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님’이 가진 화자의 존경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TT4에서 시적 화자는 떠나버린 ‘you’에게 직접적으로 슬픔과 절망을 하소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TT2, TT3, TT6에서는 떠난 대상을 3인칭으로 객관화하여 슬픔과 절망을 독자에게 넘두리하는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시적 화자와 ‘님’과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존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나룻배와 행인」의 직시 번역

「나룻배와 행인」의 직시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4연으로 구성된 「나룻배와 행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2)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늙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2) ‘만일 당신이... 기다립니다’는 한 행이므로 3연은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적 화자인 ‘나’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을 나룻배로 묘사하며, 반복법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즉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반복이 주제적 강조에 크게 이바지”(김광길 1990: 85) 하는 것이다. 이 시구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은 동일시 구문이기도 하다.<sup>3)</sup> 즉 ‘나’와 ‘나룻배’ 그리고 ‘당신’과 ‘행인’은 각각 지시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이후에 나오는 ‘나’는 나룻배로 당신은 행인으로 읽히게 된다. ‘행인인 당신은 흠발로 나룻배인 나를 짓밟습니다 나룻배는 행인을 안고…’로 읽히는 것이다. 위의 시 「나룻배와 행인」에 나타난 직시 표현들을 지각적 직시, 텍스트적 직시, 구성적 직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3.2.1 지각적 직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각적 직시는 지각적 참여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칭대명사와 정관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룻배와 행인」에서 지각적 참여자인 ‘나’와 ‘당신’은 지각적 직시로서 시적 화자가 특정 대상체를 지시하고 있다. ‘나’와 ‘나룻배’는 동일한 대상체이며, ‘당신’과 ‘행인’ 또한 동일 지표를 갖는 지시 표현이다. 따라서 ‘나룻배’와 ‘행인’의 번역은 이러한 동지시 관계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 시의 제목인 ‘나룻배와 행인’의 번역을 살펴보자.

(예 5)

ST: 나룻배와 행인  
 TT1: I The Ferry Boat You the Faring  
 TT2: The Ferryboat and the Traveler  
 TT3: The Ferryboat and the Traveler  
 TT4: Ferryboat and the Traveler  
 TT5: Ferryboat and Passenger  
 TT6: Ferryboat and Traveller

TT1은 ST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함축적인 제목 대신, 1연의 내용 ‘나는

3) 동일시 구문(equative construction 또는 equative expression)은 두 실체가 같은 대상을 뜻하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Juan is his father’가 동일시 구문이다. 이 문장에서 ‘Juan’과 ‘father’는 같은 대상이다(Langacker 2008: 397).

나룻배 당신은 행인’을 제목으로 대체했다. TT5는 ‘traveler’ 대신 ‘passenger’로 번역하였다. ‘passenger’는 나룻배를 탄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traveler’는 지나가는 사람 또는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passenger’보다는 ‘traveler’의 의미가 적합하다. TT2, TT3, TT4, TT6는 모두 ‘ferryboat’와 ‘traveler’로 번역되었고 차이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The Ferryboat and the Traveller’는 마치 이야기의 제목인 양 제시된다… 배와 사람에 관한 산문, 어쩌면 동화나 우화의 형태를 띠는 이야기”(데이비드 맥칸 2005: 66)와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관사가 없는 ‘Ferryboat and Traveler’가 함축적인 시의 제목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

(예 6)는 1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각적 대상체인 ‘나’와 ‘당신’은 각각 ‘I’와 ‘You’에 대응하기에 번역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보통 명사를 번역할 때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부정관사나 정관사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번역가마다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 6)

ST: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TT1: I am the ferry boat you  
 are the faring {with dusty}  
 TT2: I am a ferry boat. A traveler, you {tread on me}<sup>4)</sup>  
 TT3: I am the ferryboat;  
 you are the traveler.<sup>5)</sup>  
 TT4: I am the ferryboat  
 You the traveler.  
 TT5: I am a ferryboat,  
 And you are a passenger.  
 TT6: I am the ferryboat,  
 you the traveler.

TT2와 TT5는 ‘나룻배’를 ‘a ferry’로 번역하였고, TT1, TT3, TT4, TT6은

4) { }로 묶어둔 부분은 ST의 2연 1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5) 웹사이트 Korea Poetry Page에 실려 있다.



‘the ferry’로 번역하였다. ‘행인’을 번역할 때 관사를 붙이는 양상도 같다. TT2와 TT5는 부정관사를 붙여 각각 ‘a traveler’, ‘a passenger’로 번역하였다. 반면 TT1은 ‘the faring’, TT3, TT4, TT6은 ‘the traveler’로 정관사를 붙여 번역하였다. 부정관사를 붙이는 경우는 속성적 특성에 해당되어 지시적 특성이 사라진다. 즉 ‘I am a ferryboat’라 하면 ‘나’는 여러 나룻배 중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ST의 나룻배는 앞의 동일시 구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적 화자와 동일한 특정한 대상체로서 지각된다. 따라서 독자에게 구체적 대상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정관사 ‘the’가 쓰여야 한다. 나룻배를 번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룻배는 여러 나룻배 중 하나가 아니라 시적 화자가 지각하고 있는 구체적 대상체이다. 따라서 번역이 ST의 직시적 참여자로서의 효과를 살리려면 ‘the’를 붙여야 한다.

또한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 부정관사 대신 정관사를 붙일 때는 독자가 내포된 정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포될 수 있다(Black 2006: 4). 독자가 정관사 ‘the’를 해석하려면 시적 화자가 가진 배경적 가정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여(Epstein 2002: 51) 청자의 관심을 끈다(43). 즉, 시적 화자는 ‘the ferryboat’와 ‘the traveler’를 통해 독자와의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독자를 시 세계로 끌어들이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님의 침묵」에서도 나타났다. (예 1)의 ‘The beloved’의 ‘the’에도 직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the beloved’ 뿐 아니라 ‘the ferryboat’와 ‘the traveler’는 시적 화자가 마음속에 염두에 둔 특정 대상체이다.

### 3.2.2 텍스트적 직시

「나룻배와 행인」에서 텍스트적 직시는 시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나룻배와 행인」의 형태적 특성은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리듬의 형태는 “소리단위의 규칙적 반복으로 인한 울격(meter)”(양병호 1989: 221)이 형성되지 않은 자유율(free rhythm)이다. 이 시의 리듬은 반복법, 대구법 등을 통해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예 6)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은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두 어구를 짝지어 대구법을 이룬다. 두 어구 사이에 접속사와 동사

를 생략하여 간결함과 리듬감을 준다. TT1은 ‘I am the ferry boat you are the faring’으로 은유법과 대구법을 이루고 있지만 ST처럼 행 구분을 의미별로 하지 않아 대구법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행은 “의미와 리듬이 합치하여 되풀이되는 일정한 패턴으로서 시 전개와 기본 단위”(양병호 1989: 225)이므로, ST의 행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시작품에서 연과 행, 음보, 운율 등의 형태는 시 언어의 시각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원작에서 해체되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나 번역의 경우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 도상성이나 시각적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홍경표 2004: 82). 하지만 TT2는 ST의 두 행을 한 행으로 합쳐 ‘I am a ferry boat. A traveler, you’로 번역하였다. 두 어구를 나란히 배치하지 않아 대구법이 무시되고 리듬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TT3은 ‘I am the ferryboat, You are the traveler’, TT4와 TT6은 ‘I am the ferryboat You the traveler’로 각각 대구법을 이루어 전경화 효과가 난다. TT4와 TT6의 경우, ‘you’ 뒤에 동사를 생략한 것은 ST처럼 간결한 문장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TT5는 ‘I am a ferryboat, And you are a passenger’로 번역하여 대구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접속어 ‘and’를 사용하여 일탈된 표현보다는 구별화된 문장이 되었다. 일반 문장에서는 접속사를 붙여야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시에서는 시적 효과를 위해 생략할 수 있다. 일반 문법에서 벗어난 일탈된 표현은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룻배와 행인」의 원본은 4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를 현대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따라 4연 또는 5연으로 구성되었다. 번역가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번역하였느냐에 따라 영역시가 4연이나 5연으로 구성될 수 있다. TT1, TT4, TT6은 5연으로, TT3, TT5는 4연으로 구성된 반면, TT2는 1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서 연의 구성은 소설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시적인 특성이며, 이러한 “시의 형태는 시 읽기를 안내하는”(Boase-Beier 2011: 142)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의 구성을 바꾸게 되면 시의 느낌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시의 1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은 4연에서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반복법은 리듬감을 주며 시구를 강조하는 효과가 난다. TT2를 제외한 TT에서는 모두 연이 구별되어 있고 1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하다. TT2만 1연 1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7).

(예 7)

TT2: I am a ferry boat. A traveler, you tread on me  
with muddy shoes. I take you aboard to cross  
the river. With you held in my arms, I go across  
the currents, deep, shallow, or rapid  
If you do not turn up, I await you from dawn  
to dusk, despite the wind, rain, or snow.  
Yet, once you've crossed the river, you do not  
look back on me. But I believe you will be coming  
back some day.  
I grow old and worn-out waiting for you  
day after day.  
I am a ferryboat. You are a traveler

(예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T2는 ST와 시각적으로 느낌이나 인상이 달라 보이며 대구뿐 아니라 반복의 효과도 잘 보이지 못 한다. 필킹톤(Pilkington 2000: 141-142)에 따르면, 수사법은 느낌이나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정서나 느낌은 시적 효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TT2는 대구법과 반복법이 약화되어 시적 효과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번역이 시를 서사적인 산문으로 이해한 것, 즉, 제목에 두 개의 the를 넣음으로써 제목에 동화/우화의 뉘앙스를 부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데이비드 맥칸 2005: 67). 즉 연 구분이 없는 TT2 ‘The Ferryboat and the Traveler’는 산문적인 느낌을 준다.

### 3.2.3 구성적 직시

「나룻배와 행인」에서 구성적 직시는 시의 행을 구분하는 문학적 관습과 관련 있다. 시에서 연과 행을 나누는 것은 보편적인 시적 특성이지만 행을 구별하는 방식은 문학적 관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 8)은 3연의 1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한국어의 시적 관습에서, 한 행이 길어져 줄을 바꿀 때는 일반 글쓰기처럼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행과 관련된 번역 양상은 TT마다 다르다.

(예 8)

ST: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T1: But when you farrey I drift and  
sway thumped by hailstones  
on call night and day only for  
bearing you over the water  
TT2: If you do not turn up, I await you from dawn  
to dusk, despite the wind, rain, or snow.  
TT3: When you don't come, I stand in the wind,  
I face the snow and the rain: I wait for you from night to day.  
TT4: When you don't come I wait dark to dawn, disdain  
the chill wind, the wet of snow and rain;  
TT5: When you do not come, I wait for you from night to  
day, in the wind, in the rain, in the snow.  
TT6: If perchance you do not come, then exposed to the wind,  
facing snow and rain from night into day I wait for you.<sup>6)</sup>

TT1은 ST의 1행을 4행으로 늘린 것이며, TT2와 TT3은 2행으로 늘린 것이다. TT4, TT5, TT6은 ST처럼 1행이다. 하지만 TT5는 행을 바꿀 때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영어의 시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한국어의 시적 관습을 따른 형태이다. TT4와 TT6이 영어의 시적 관습을 따르는 번역이다. 영어의 시적 관습에서는 한 행이 길어 줄을 바꿀 때 들여쓰기를 한다. 이와 같은 행의 번역 양상은 (예 3)과 (예 4)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특히 텍스트의 유형의 관습, 일반적인 언어 구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위의 적절함 또는 부적절함에 대한 목표독자의 기대치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언어적 사건과 비언어적 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TT2와 TT6은 ‘만일... 면’을 ‘if’로 번역하였고 나머지 텍스트는 ‘when’으로 번역하였다. ‘if’와 ‘when’은 내포된 의미가 다르다. 그런디(Grundy 2013: 120)에 따르면, ‘if’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사용되고 ‘when’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 사용된다. ST의 의미는 문맥상 (당신이 올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나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므로 ‘if’에 더 가깝다.

(Baker 2011: 222). 따라서 시적 관습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목표독자에게 시의 형태가 이상하게 보여 불필요한 곳에 시선을 머물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ST의 직시적 중심은 ‘나’이며, TT의 직시적 중심은 ‘I’이다. 따라서 목표독자가 시적 화자인 ‘I’와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 느낌이나 정서를 함께 공유하려면 TT4나 TT6에서 번역된 것처럼, 행과 관련된 시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님의 침묵」과 「나룻배와 행인」의 인지적 직시 번역 양상에 따라 시의 해석이나 느낌이 달라지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님의 침묵」에서 지각적 지시어인 ‘나’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님’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었다. ‘님’의 번역 양상에 따라 시 전체의 느낌이나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관계적 직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님’은 ‘my love’나 ‘the beloved’로 번역될 수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번역은 ‘you’였다. ‘you’에서는 시적 화자와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의 관계라는 점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 ‘you’가 떠나버린 슬픔이나 절망을 ‘you’에게 직접적으로 하소연하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I’와 ‘you’가 있을 경우, ‘we’의 의미는 청자를 배제한 특정인을 뜻하는 의미로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시간적 직시는 동사 시제 ‘갔습니다’, ‘슬픔에 터집니다’ 등과 관련이 있었다. 님이 과거에 떠난 사건으로 인해 현재 시적 화자의 마음 상태가 괴롭고 슬프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님과 관련된 사건 ‘갔습니다’ 등은 현재시제나 과거시제보다는 현재완료가 적절해 보였다.

「나룻배와 행인」에서 직시어는 문법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원본과 영역본의 직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정관사와 관련된 직시가 이에 속했다. 나룻배나 행인과 같은 보통명사를 번역할 때 첫 행에서 부정관사 대신 정관사가 있을 때는 지각적 직시로 사용된 경우였다. 시에서 ‘나룻배’와 ‘행인’은 각각 특정한 대상체로 지각되며, 부정관사 대신 정관사를 사용하는 번역이어야 한다. 시의 특성과 관련된 텍스트적 직시는 연과 행의 구분과

더불어 대구법, 반복법을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영역본에서 이러한 시의 특성이 사라질 경우 시의 리듬감이 약화되고 시적 효과도 약화될 수도 있었다. 또한 시적 관습과 관련된 구성적 직시에서 영어의 시적 관습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색한 느낌을 주고 원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감정이 입이 다소 어려워지게 된다.

시의 직시적 참여자, 시제와 상, 호칭, 수사법, 시의 행과 연 등의 인지적 직시 장치는 시의 맥락적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시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목표 독자도 문학번역 텍스트에 인지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으므로, 인지적 직시 효과를 최대한 반영한 번역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형진 (1996) 「만해 시의 어조연구」, 『어문학연구』 4: 73-98.  
 김광길 (1990) 『만해 한용운 시의 존재론적 해명』,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룡태 (1988) 「만해 시 '님의 침묵'의 시간구조」, 『국어국문학』 25: 81-107.  
 김육동 (2010) 「한국 문학의 영문 오역」, 『통번역학연구』 14(1): 31-65.  
 김재홍 (1998)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시안』 1(1): 216-234.  
 데이비드 맥칸 (2005) 「과연 뜰까? 만해의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단상」, 『국어국문학』 139: 61-74.  
 양병호 (1989) 「만해 시의 문체론적 연구」, 『국어문학』 27: 209-229.  
 윤석성 (2014) 『님의 침묵 풀어읽기』, 서울: 동국대학교.  
 윤재근 (1983) 『만해시와 주제적 시론』, 서울: 문학세계사.  
 윤호병 (2003) 『문화적 환경: 번역의 진지성과 창조성』, 『비교문학』 31: 1-16.  
 이정화, 서소아, 율김 (2009) 『인지시학개론』, 서울: 한국문화사(Peter Stockwell 2002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조수연 (2014) 「코퍼스 기법을 활용한 문학 텍스트 직시어(Deixis) 번역 전략 비교 분석: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

- 역학연구』 15(1): 239-264.
- 조의연 (2009) 「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과 모순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2): 207-246.
- 하길중 (2007) 「만해시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문법교육』 7: 229-257.
- 한미애 (2011) 「문학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번역학연구』 12(4): 205-229.
- 한미애 (2013) 「소설 텍스트에서 직시어 번역 양상: 「눈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389-410.
- 홍경표 (2004) 「한국 현대시의 영어 번역에 관한 연구」, 『배달말학회』 34: 69-97.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 Black, Elizabeth (2006) *Pragmatic Stylistics*, Edinburgh: Edinburgh UP.
- Boase-Beier, Jean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Epstein, Richard (2002) 'Grounding, Subjectivity and Definite Descriptions', in Frank Brisard (ed.) *Grounding: The Epistemic Footing of Deixis and Referenc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Furrow, Melissa (1988) 'Listening Reader and Impotent Speaker: The Role of Deixis in Literature', *Language and Style* 21(3): 365-78.
- Grundy, Peter (2013) *Doing Pragmatics 3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 Langacker, Ronald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P.
- Levinson, Stephen (2006) 'Deixis', in Laurence Horn and Gregory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Malden & Oxford: Blackwell.
- Pilkington, Adrian (2000) *Poetic Effects*, Amsterdam & Philadelphia: J. Benjamins.
- Reichenbach, Hans (1966)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Free.
- Richardson, Bill (1998) 'Deictic Features and the Translator', in Leo Hickey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 Philadelphia:

## Multilingual Matters.

- Stockwell, Peter (2002)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분석 텍스트>
- 윤석성 (2014) 『님의 침묵 풀어읽기』, 서울: 동국대학교.
- Kang, Younghill & Frances Keely (trans.) (1970) *Meditations of the Lover*, Seoul: Yonsei UP.
- Kim, Jaihiun (trans.) (1994) *Modern Korean Poetry*, Fremont: Asian Humanities.
- Jang, Gyung-ryul (trans.) (2005) *Selected Poems from The Silence of My Love*, edited by Kim Jae Hong (ed.), Seoul: Manhae Academy.
- McCann, David (trans.) (2017) *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Seoul: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O'Rourke, Kevin (trans.) (1999) *Looking for the Cow*, Dublin: Dedalus.
- O'Rourke, Kevin *Korean Poetry Page*, Available at <http://koreanpoetry.blogspot.com/2006/03/han-yongun-1879-1944-reformist-monk.html>.
- Solberg, Sammy (trans.) (2004) *Columbia Anthology* edited by David R. McCann, New York: Columbia UP.

[Abstract]

**Translation Analysis of Han Yongun's Poems:  
Focusing on Cognitive Deixis**

Han, Miae · Cho, Euiyon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paper explores how the feelings and implicated meanings of the translated poems are varied depending on how deictic expressions are translated. It will be based on the categories of cognitive deixis which are referred to as “deixis as adapted to the literary context” (Stockwell 2002).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ource texts, ‘님의 침묵 (*Nim-ui chimmug*)’ and ‘나룻배와 행인 (*Nalusbaewa haengin*)’, with the six types of the target texts in English. In the former poem, perceptual deixis related to the third-person ‘님’ is modified into the second-person pronoun ‘you’ instead of ‘my lover’ or ‘the beloved’. This translation may be problematic because the perspective of the poetic narrator on the beloved changes the indirect into the direct, which influences interpretation of ‘we’ and the relational deixis. In the latter poem, textual deixis related to poetic features affects poetic effects, and translators need to preserve the lines and stanzas, parallelism and repetition. Compositional deixis related to the poetic convention of lines affects the naturalness of translated poems, and needs to be adapted to the poetic convention of the target culture. Since meanings of deictic expressions depend on context, translating poems involves a process of context-creation in order to follow the center of all the deictic expressions. Cognitive deixis is a device that helps to interpret the feelings and perspectives of poems. Therefore, translato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effect of deictic expressions on their translated text.

▶ Key Words: Silence of the Beloved, Ferryboat and Traveller, perceptual deixis, textual deixis, compositional deixis

▶ 주제어: 님의 침묵, 나룻배와 나그네, 지각적 직시, 텍스트적 직시, 구성적 직시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연구초빙교수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정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화용론, 번역학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